

Open Doors

2019. 4. Vol. 204

박해와 선교 현장

중국 *China*



오프도어 4월 캠페인

박해의 숨은 희생자 :

어린이와 청소년

Yellow ID

TA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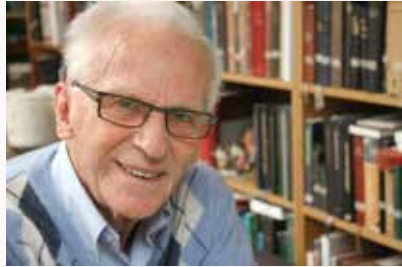
@opendoors를 검색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여 친구추가 하세요.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주의 기도(4)

브라더 앤드류(오픈도어 설립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마 6:10)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놓고 볼 때 한 사람의 기도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핑계 삼아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면, 그 사람의 빛은 어둠 가운데서 더욱 빛나게 될 것이다.

5억 명 중에서 오직 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면, 나머지 5억 명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코 말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천 근의 논쟁보다 한 근의 경험이 더 무게가 나가기 때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에 관계된 모든 것을 기도한 후에 비로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양과 힘이 필요한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위해 양식을 구하는 일이다. 우리는 영적, 신체적, 정서적 필요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친구 그리고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우리는 기근과 유행병 또는 홍수와 지진 같은 재난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우리는 치유, 구조, 식량 공급 등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를 “오늘날 나에게”로 바꾸지 말라. 기독교인들은 나의 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기도 습관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복을 받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내가 이기적인 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실 수도 있다.

때때로 우리는 이기심의 결과를 경험하고서야 교훈을 터득하게 된다. 하나님은 “좋아, 사탕을 주마. 네가 병에 걸리기 원한다면, 병에 걸려야지. 그러면 아마 깨닫게 되겠지”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른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사탕이 주는 달콤하고 잠시 동안 주는 기쁨에 취해서 치아가 썩게 되고 몸이 뚱뚱해지며 게을러지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탕을 구하는 습관에 젖게 된다.

하나님은 고개를 저으시면서 말씀하신다. “그것이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안 된다고 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얻는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기적인 우리의 기도의 대가는 우리에게나 우리에게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에게나 거의 항상 두려운 것이다. 우리는 열매도 목적도 없이 효율성 없는 사람을 살게 되며 하나님의 계획이나 목적과는 무관하게 지내게 된다.

- 04 북한 선교 현장
나의 출애굽기 X
- 06 박해와 선교 현장
중국(China)
- 10 어린이, 청소년 캠페인: 스토리
박해의 숨은 희생자 어린이와 청소년
- 14 2019년 박해 지도
- 16 어린이, 청소년 캠페인: 사역
따돌림 당하는 북아프리카의 기독교 어린이들
- 21 오픈도어 박해 퍼즐
- 22 2019 머스카슬론(MUSKATHLON)
한국대회 국내 참가자 모집
- 23 박해의 숨은 희생자 어린이·청소년 돕기 캠페인



04



06



10



16

OpenDoors 2019년 04월호 | 통권 204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 _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_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_김명재, 김영복 목사
 이사회 _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김성곤, 박윤환,
 이동현, 배춘섭, 김윤태 목사
 사무총장 _이종만 목사
 정보/행정/재정 _오현정 간사
 북한선교 _제나, 이다니엘, 리디아, 나오미, 레아, 수지 간사
 발행처 _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 596-3171 / 070-7522-3171
 이메일: opendoorkorea@gmail.com
 편집 _이종만 목사

〈후 원 계 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 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오픈도어선교회: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북한 캠페인: KB 국민은행 029301-04-169183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나의 출애굽기 X

드보라

나는 다시 시골로 돌아왔다. 그렇게 시골을 벗어나고 싶었는데 그곳을 벗어나니 막상 갈 곳이 없었다. 방황하는 내 모습을 보고, 특히 돈 벌겠다고 가출을 했다가 돌아온 나를 보고 남편은 걱정이 되었는데 술만 마시지 말고 밖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돈을 조금 쥐여주었다. 그렇지만 시골 마을에 사람들이 자주 어울려 놀만한 거리가 별달리 있었겠는가? 그저 모이면 마작을 치는 것이었다.

나도 자연스럽게 마작에 재미를 붙였다. 마작을 하면서 돈을 잃으면 분해서 돈을 빌려서 또 하고 또 잃고 그랬다.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작을 하고 있으면 남편은 나를 잡으러 왔다. 나는 괜히 집에 가서 또 남편과 싸웠다.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던 때에 우리가 자주 마작을 하던 집에 한국 위성 TV가 들어왔다. 그 집에서 마작을 놀다가 한국 드라마가 나오는 것을 봤다. 그전에도 한국 드라마가 방송이 안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중국어 더빙이 된 방송이었다. 그렇지만 그 집의 드라마는 한국말로 방송이 나오는데 너무 집중되고 몰입이 되었다. 드라마에 빠지기 시작하자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남한이 너무 부럽고 멋있었다. 북에서 알던 그런 곳이 아니었다.

특히 한국 남자는 남조선 괴뢰도당을 따라 포악하고 악랄한 줄로만 알았는데 드라마에서 한국 남자는 정말 보들보들했다. 여자들을 많이 배려해주고 말도 예쁘게 하고... 드라마를 보다가 내 처지를 생각하면 기가 막혔다. '같은 여자로 태어났는데 누구는 이렇게 고생하고 누구는 저렇게 대우받는가... 괴뢰들이라고 하더니 남한 남자들은 저렇게 잘생기고 때깔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드라마에 심취하다 보니 나 중에는 마작도 대충하고 드라마에 빠져들었다. 드라마를 열심히 보다 보니 문득 나도 저런 2층 집에서 잘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그 즈음 우리는 딸을 낳았다. 그전에는 애를 안 낳고 버텼지만 다른 탈북자들이 자식을 놓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이 시골에는 학교도 제대로 없기 때문에 자식 핑계로라도 나중에 시골을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곳 생활을 해나가는 와중에 우연찮게 이전에 거래하던 감옥에 수감되었던 대방하고 연락이 되었다. 그 대방이 감옥에서 나와서 이전에 장사했던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나한테까지 연락이 왔던 것이다. 애가 막 2개월 되었을 때였다. 집으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그 대방 아저씨였다. 그 대방은 북에 있는 우리 가족도 연락이 닿은 상태였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통해 북한의 가족까지 찾을 수 있었다. 대방에게 돈을 받지 못했던 형부는 결국 망하고 집은 이사를 가야만 했지만 다행히 감옥까지는 가지 않고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제 가족들에게 송금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가족과의 연결점을 찾았으니 정말 기쁜 일이지만 그 일로 남편과 나는 돈이 생길 때마다 싸우기가 일쑤였

다. 비료는 외상으로 사는데 곡물 값은 너무 저렴해서 돈이 안되니 가을에 밭을 갈으면 남는 것이 없었다. 그 와중에 나는 조금이라도 북의 가족을 도와야 된다는 생각에 송금을 하려고 했고 남편은 돈이 없다고 막았다. 겨우 북의 가족과 연결이 되었는데 제대로 돕지도 못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속상했다. 남편이 미웠고 가난한 집구석이 싫었다. 그 사이 우리 시골에도 단속의 손길이 뻗어왔다. 하루는 밤에 공안이 와서 아기가 없는 탈북자 2명을 잡아갔다.

너무 놀라고 무서웠다. 우리는 아마 아기가 있어서 그나마 안 잡아 갔던 것 같다. 너무 불안했다. 시내로 가면 안전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중국에서는 종종 대대적으로 탈북자를 잡으러 다니는 시기가 있다. 그럴 때는 시내의 남편 친척집에 숨어있기도 했다.

그러던 중에 전에 아는 아주머니께서 나에게 남한행을 권유하셨다. 하도 분위기가 뒤숭숭하고 언제 잡힐지 모르니 한국행이 어떠냐는 것이었다. 나도 불안에 떠는 차에 드라마를 통해 본 남한의 모습도 생각하면서 남한행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전에는 남한에 가기는 커녕 남한 사람도 안 만나려고 했었던 내 모습을 생각한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변화였다. 그렇게 한국행을 결심하고 수소문을 해서 어떤 브로커와 연결이 되었다. 아직 어린 딸아이가 걱정이 되었지만 일단 내가 한국에 가기만 하면 거기서 돈을 쓰면 아이는 데려올 수 있다고 해서 결정을 했다. 그리고는 연락을 기다리며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했다.

그런데 평소에는 맡겨도 칭얼대지 않던 아이가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울었다. 아이에게 시장 다녀오겠다고 달랬지만 그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웬지 이전에 북에서 놓고 온, 나를 배웅하던 아이들의 모습이 문득 생각이 났다. 그렇지만 나는 애써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며 불안감을 눌러 담았다.

어쨌든 남한에 가면 아이도 다시 데려오고 돈을 벌어서 북에 송금도 할 수 있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불안

감을 억누르며 약속 장소로 왔다. 아직 브로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약속 장소에서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남자가 성큼성큼 나에게 다가왔다. “남한 가시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이구나 싶어서 “네, 맞습니다.” 하고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는 질문을 이어서 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 찰나의 순간에 내 주변 공기가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면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 남자는 지갑을 열어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공안중이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내 주위를 이미 몇몇의 사복 입은 공안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올라가미였다. 신고받고 온 공안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결국 공안에 붙잡히고 말았다. 꿈꾸던 남한에서의 생활은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다.
<계속>



북한의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 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중국

China



인구: 1,415,000,000명

박해정도: 극심함(27위)

수도: 베이징(Beijing)

주 박해 요인: 정부의 탄압, 이슬람 탄압, 불교의 탄압

보고기간: 2017년 11월 1일 - 2018년 10월 31일

2019년 기독교 박해 보고서에서 중국은 65점을 받으며 조사 대상국 중 27위를 기록하였다. 2018년 중국의 기독교 박해 보고서는 57점이었으며 43위를 기록하였었다.

1. 주된 박해 형태

- **공산주의 정권의 박해:** 중국 공산당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는 모든 형태의 종교, 특히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통제하려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 **이슬람의 억압:** 신장 위구르족 출신의 이슬람 배경을 가진 기독교 개종자들은 개종 후 정부와 가족, 지역 사회로부터 많은 박해와 억압에 시달린다.
- **종교적 민족주의:** 티베트 불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도 개종 후 가족과 친구, 지역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박해를 받는다.
- **독재정권의 억압:** 시진핑 국가주석은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노력을 하는데 있어서 기독교인들을 정치적 위협으로 여긴다.

2. 누가 박해를 주도하는가?

소수의 이슬람 및 티베트 불교 배경의 기독교인들은 개종 자체를 지역 사회와 가족에 대한 배신으로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비기독교인 종교 지도자들과 가족, 지역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는다. 중국의 공산주의 정치 지도자들은 중국의 전 지역에서 일반 시민들의 자유 및 권리를 강도 높게 제한하는데, 이는 중국 사회 전체를 통제하여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공산당이 종교에 관한 규제들을 시행한 이래로 종교 집단, 특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우가 가혹해졌다. 기독교인들은 특히나 정부의 집중적인 감시를 받는데, 이는 중국 내 존재하는 비정부 세력 중 가장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사회 집단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무슬림 및 티베트 불교 신자가 기독교로 개종

한 것이 지역 사회 구성원들과 가족들로부터 발각이 되면 보통 개종자들은 그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신체적인 피해를 입으며, 지역 사회 지도자들에게 개종 사실이 보고된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을 다시 원래의 종교로 개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해진다. 모든 교회들은 그 규모가 커지면서 사회의 큰 위협으로 여겨지고, 외국의 외부 인사들을 초청함으로써 지나치게 정치적인 색을 띠는 비판을 받아 왔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문화 정체성을 이용하여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교회를 중국화 하려는 정치적 전략을 이용한다. 새로이 도입되는 인터넷과 SNS, NGO와 종교에 대한 제재들은 중국 내에서 시민들의 자유를 더욱 위협하는 요소이다. 하지만, 새로 도입되는 규제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규제들의 더욱 엄격한 적용 또한 볼 수 있다. 일례로, 2018년 3월에는 성경책의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아래 도표는 보고된 사례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많은 폭력 사태들이 보고되지 않고 있는 실태를 감안한다면 아래 숫자들은 각 항목에 대한 최소 숫자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중국	2019 기독교 박해 보고서	2018 기독교 박해 보고서
보고 기간	2017년 11월 - 2018년 10월	2016년 11월 - 2017년 10월
살해 당한 기독교인 수	0	0
공격 당한 기독교인 수	58	12
체포된 기독교인 수	1131	134
공격 당한 교회 수	171	10

3. 구체적인 박해 사례

- 시골에서는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들인 라마들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종교 지도자인 라마가 지역의 정부 관료의 자리를 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가지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이들은 정부에서 공급되는 구호물자를 지역별로, 가족별로 배분하는 역할을 하기 때



문에 기독교로 개종할 경우 이로부터 제외될 가능성이 커진다.

• 공산당은 중국의 유일한 정치 정당이다. 중

국 국민당(Kuomintang Part,

KMT)처럼 그 명맥이 유지되는 정당이

있는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이름만 존재하는 경우가 전부다. 그러나 시민 사회에서 출발하는 사회단체들은 허용되는데, 기독교 단체들은 정식으로 등록된 교회의 후원을 받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중국의 기독교 사회는 배제되기 때문에, 이들이 사회 내에서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극히 드물다.

• 2019 기독교 박해 보고서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이 살해를 당한 경우는 보고되지 않았다. 하지만, 교회를 공격한 사례나 기독교 지도자들이 구금된 경우, 기독교인들이 공격을 당하고 구타를 당한 사례가 많이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특히 기독교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큰 허난성(Henan)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은

주로 안보기관, 혹은 통일전선부(United Front Work Department)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행해졌으나, 지역 내 폭력배들이 고용되어 공격을 한 경우도 있었다.

•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저장성(Zhejiang)에서 진행된 반기독교 캠페인과 유사하게 교회 외벽에 걸린 십자가를 파괴하는 사례도 많이 보고되었다. 이는 중국의 삼자애국운동 교회(Three Self Patriotic Movement, TSPM)와 가정 교회들 모두 동일하게 피해를 입었다. 임대주들에게 교회와 작성한 임대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도록 압력을 넣은 정황들도 포착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베이징 최대 규모의 시온교회(Zion house church network)와 산시성(Shanxi)의 대형 교회인 황금등잔교회(Golden Lampstand House Church)를 폐쇄한 일이다. 사태의 심각성은 베이징의 미등록 가정 교회들이 연합 성명서를 낸 것에서도 알 수 있는데, 이들은 2018년 7월 중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중국 정부 관료들에게 요구하였다. 2018년 12월까지 약 600명 가량의 중국 전역의 미등록 가정 교회 목사들이 이 성명서에 서명을 하며 지지를 표명하였다.



4. 주요 박해 요인

공산당 압박: 종교에 관련된 법률이 정부가 아니라 공산당에 의해 시행된다는 사실은 기독교인들에게 좋은 현상은 아니다. 공산당은 목적을 이루고 국가 이념을 유지하는데 무관비하며 필요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시진핑의 이념과 선포에 대한 강조는 중국화에 대한 전조에 불과하다. 규제는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새로운 강조와 주장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한하여 그들의 통치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모든 간접적인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개적 규제와 폭력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접속을 막는 중국 정부의 시스템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상 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의 차단을 통해 인터넷 접속과 생성된 뉴스를 차단한다.

독재적 억압: 2020년까지 정부가 모든 시민의 등급을 나누려는 사회 신용 체계를 도입하려는 계획이 등장했다. 성장하는 온라인과 모바일 결제에 도입이 되면 이러한 등급을 매기는 일은 상당히 위험을 내포하게 된다. 이런 계획이 진지하게 진행된다면 더 나은 등

급을 가지려고 속임이나 뇌물의 등장만의 문제는 아니다. 만약 종교나 기독교인에 대해 등급을 매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사회적 무관용: 공산당 이념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무관용도 함께 증가한다. 실제로 여러 해 동안 종교는 인민에게 아편이라는 사회주의 이론은 2019년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에서 강하게 등장한다. 공산당은 모든 종교를 억누르지 않지만, 공산주의 사고를 스며들게 하거나 영향을 주지 못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의료 종사자들은 종교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서명한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나이 든 신자들은 위협을 당하거나 사회의 공공혜택이 차단되고 공산당이나 의장을 숭상하라는 지시를 받는다는 보고가 전달된다.

이슬람의 압박과 종교 민족주의: 박해의 동력은 주로 가족, 사회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들이며 이슬람과 티베트 사람들 가운데 개종한 수천 명에게 가해지고 있다. 개종자에 대한 압력은 잠재적으로 정부 정책의 수단에 의해 그들에게 점증하는 압력으로 가해지고 소수 민족의 단결에 대한 절박함에서 매우 높아지게 된다.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 후원: 우리은행 1005-901-884970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박해의 숨은 희생자 어린이와 청소년

당신은 비록 부상을 당했지만 행복해 보이는 위의 작은 어린아이들 사진이 보이십니까? 이 아이들의 이름은 왼쪽이 알바로 시나가(Alvaro Sinaga)이고 오른쪽은 트리니티 후타힌(Trinity Hutahaean)이라는 4살짜리의 아이들입니다.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의 사마린다(Samarinda) 주에서 2016년 11월 13일 일어났던 교회 폭탄 사건으로 한 명의 어린아이가 목숨을 잃었고 3명의 어린이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진의 어린이들은 부상당한 3명의 어린이 중 2명입니다. 한 명의 테러리스트가 화염병 폭탄을 교회 주차장에 던졌으며 주일학교가 끝난 후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부모님을 기다리며 교회 뒤뜰에서 놀고 있던 어린이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상실의 아픔

그 당시 가장 큰 부상을 당한 어린이는 2살이던 인탄(Intan)(옆사진 왼쪽)였습니다. 그 아이는 사건 발생 이후 하루만에 숨졌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딸을 잃은 슬픔으로 매우 비통해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인 33살의 다이애나 시나가(Diana Sinaga)(옆사진 오른쪽)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장례식이 있는 지 겨우 1주도 안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의 고통

은 더할 수 없이 비통했습니다.”

피해 당한 어린이들의 가족들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감정으로 무기력해질 뿐 아니라 지속적인 신체적인 고통이나 트라우마 또는 화와 죄책감에 시달려야 하며 매우 혼란스러워하며,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도가니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향하는 길

알바로(Alvaro)의 아버지인 호트디만시나가(Hot-dimanSinaga)(우상단 오른쪽)는 동부 보르네오의 사



인탄과 그의 어머니 다이애나 시나가

마린다(Samarinda) 시에서 1,000 마일 떨어진 서부 보르네오의 폰티아낙(Pontianak) 지역에서 건설업 감독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교회에서 테러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폰티아낙에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서둘러서 집에 왔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26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가는 내내 나의 아들의 다리나 팔이 잘려 나갔을 것이라는 최악의 상상을 하였습니다.” 그는 멈추더니 주변을 돌아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공항에 도착하였을 때 제 부인이 아들을 안고 있는 사진이 신문에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진 밑에 기사 글에는 아이들이 폭탄 테러로 죽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신문 기사를 읽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줄곧 주님께 ‘제발, 제발 주님, 제발 제 아들 알바로를 저에게서 데려가지 말아주세요’라고 탄원하듯이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는지 아이는 부상당했지만 살아났습니다.”

“저는 계속 주님께 이렇게 여쭙었습니다. ‘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왜 내 아들 입니까? 제가 주님께 몸을 죄를 저질렀나요?’ 그러나 그때 저는 그런 식으로 주님께 대들면서 따지는 것 자체가 주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지요”라고 호트디만이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당시 2살이었던 아니타 시호탕(Anita Sihotang)은 부상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립니다. 아니타는 폭탄이 폭발하였던 그 당시의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



아버지 호트디만 시나가와 알바로



아니타와 아버지 잭슨

니다. 아빠가 오토바이 시동을 걸 때마다 그녀는 폭발에서 겪은 트라우마로 항상 도망칩니다.

아니타의 아버지 43세의 잭슨 시호탕(Jackson Sihotang)은 새해 퍼레이드에 불꽃놀이 행사를 보며 놀라움을 느끼며 우는 딸의 모습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날 밤 공포에 질린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로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할지 몰라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트리니티의 어머니인 사리나 굴툼(Sarinah Gultom)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고난을 견디어 내어야 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이 끔찍한 사건을 통해 아름다운 계획하심이 있으실 줄을 믿습니다.”

용서를 향한 내딛음

트리니티의 어머니 사리나(Sarinah)는 교회 권사로서 밖에서 폭탄이 터질 즈음 주일예배를 돕고 있었습니다.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났을 때 맨 처음 그녀의 마음에 떠오른 것은 평소처럼 교회 뒤뜰에서 놀고 있을 딸의 안부였습니다. 사리나는 트리니티를 찾아 미친 듯이 뛰어나갔습니다. “저는 제 딸아이의 머리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았고 아이의 얼굴은 검게 그을려있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너무 뜨거워서 저는 재빨리 아이의 옷을 벗겨내었습니다”라고 그녀는 회상하였습니다.

교회의 권사로서 사리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크

트리니티



리스천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듯이 가해자인 원수도 사랑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 가해자를 용서하였습니다. 폭탄을 터트린 테러범에 대해 더 이상의 증오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빨리 잘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픈도어 사역자들이 그녀의 회복과 영적인 치유를 위해 기도하자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해주신 그 기도가 저에게 많이 와 닿습니다.”

희망의 끈

최근 인탄(Intan)의 어머니인 다이애나 시나가(Diana Sinaga)는 딸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인탄의 여동생은 인탄이 죽을 때 임신 3개월이었습니다. “막내딸을 가지고 싶어하던 우리의 바램 속에 태어난 아기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기를 바라보기보다는 아기의 언니인 죽은 인탄의 이름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탄은 노래를 참 잘했어요. 항상 집안 분위기를 밝혀주는 아이였죠. 늘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끊임없이 이것저것 묻곤 하는 아이였어요. 그러던 나의 귀한 딸이 이제는 없네요. 정말 마음이 허전합니다.

지난 부활절에 다이애나와 그녀의 남편은 딸의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전처럼 즐겁게 살수가 없어요”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회복의 시작

부상을 당한 3명의 어린이들은 모두 긴 시간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한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트리니티와 알바로는 부상이 너무 심하고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래환자로 계속 병원을 드나들어야 합니다.

한때는 알바로의 두피가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서 더 이상 머리카락이 날 수 없다고까지 의사가 진단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에 난 상처와 두피를 보며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알바로는 저의 유일한 귀중한 아들이자 희망이고 기쁨입니다. 그는 똑똑하고 잘생긴 아이죠”라

고 흐르는 눈물을 멈추려고 애쓰는 듯 숨을 참으며 호트디만이 말했습니다.

그는 알바로와 함께 수술실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차마 아들의 머리를 치료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난 후 알바로는 귀가 정상적으로 들리기 시작했으며 머리카락 이식 수술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세를 띄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고전 10:13)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알바로는 저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저는 더욱 강해져야 합니다.”

알바로는 여전히 트라우마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제가 요리할 때마다 여전히 겁에 질립니다. 제가 불을 사용할 때 아이는 소리를칩니다 ‘엄마! 불을 어서 꺼요!’ 라고요”라고 40세의 알바로의 어머니 노비타 사갈라(Novita Sagal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트리니티는 화상으로 인한 흉터종을 치료하기 위해 스테로이드 주사를 꾸준히 맞고 있습니다. “흉터종을 치료하기 위한 다른 치료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사가 너무 아파서 매번 소리 지르며 우는 아이의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라고 트리니티의 어머니가 말했다. 트리니티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기 전에 화상 당한 부위에 국소마취를 해야 하는데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2주마다 2번 밖에는 마취주사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따르면 심지어 어른들도 마취주사를 놓지 않으면 화상 당한 부위에 주사를 놓는 것이 매우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몇 주가 흐른 후 저는 트리니티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복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보고 저의 희망도 사그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라고 사리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희망을 잃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강하게 붙들어 준 것은 바로 알바로는 그 힘든 치료들을 용감하게 이겨내는



트리니티와 아니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아들과 저희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붙들어주셨습니다”라고 알바로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테러의 피해를 입은 부모들이 자신이 혼자 버려졌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서 우리를 방문하도록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오픈도어는 현재까지 가족들을 3번 방문하였고 필요한 돈을 제공할 뿐 아니라 책이나 장난감 같은 생활용품까지도 보내주었습니다. 오픈도어 사역자들은 또한 그들의 상황을 비디오로 찍어서 중보기도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곳곳의 다른 교회들의 중보와 관심이 오픈도어를 통해 우리에게 사랑과 격려로 이어지게 된 것에 대해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중보와 격려에 감사드립니다”라고 트리니티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랑의 완결

알바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테러로 부상당한 트리니티와 아니타 또한 폭발의 부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강한 소리가 날 때면 트라우마로 몸을 움츠리며 숨으려 합니다. “사고가 나고 몇 주 후에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소리지르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폭탄 테러범을 쫓라!’ 아이들은 사고가 난 후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강사인 24세의 나오미 사갈라(Naomi Sagal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지에 대해 다시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쁜 사람이나 테러범까지도.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야 하며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



알바로

하면 어른들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진정 예수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치료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이러한 아이들이 다시 교회 주일학교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목격자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도네시아 국가기관 관계자들도 이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피해당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5월부터 격주로 지역 병원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들은 또한 5월에 자카르타에서 열릴 테러범 재판에 가족들이 참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저는 법원에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테러범들이 적절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인탄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긴 여행

부상을 당한 어린이들은 낯선 사람들을 만나기를 두려워하며 자신의 부상당한 얼굴을 비추어 보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자궁심을 가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알바로는 항상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할 때 평화를 상징하는 손 모양을 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트리니티는 카메라를 응시할 때도 계속 미소를 짓는 희망찬 영혼의 소유자입니다.

이러한 부상자들에게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회복이 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의 사랑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험난했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그래서 이들의 남은 삶의 여정이 주님 안에서 평화롭고 기쁨이 가득한 여행이 되도록 기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 후원: 우리은행 1005-901-884970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2019년 박해지도를 신청해주세요.

전화: 02)596-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필요한 사이즈와 수량을 말씀해 주세요. (국2절, A4 사이즈)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서울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02-596-3171 | odsk@opendoors.or.kr
<https://www.facebook.com/opendoorsko>

그리스도인 박해 압력 정도

개인영역
최고점수 = 16.7

가족영역
최고점수 = 16.7

공동체영역
최고점수 = 16.7

국가영역
최고점수 = 16.7

교회영역
최고점수 = 16.7

폭력
폭력에 대한 총점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미움의 정도를 나타낸다.

폭력
최고점수 =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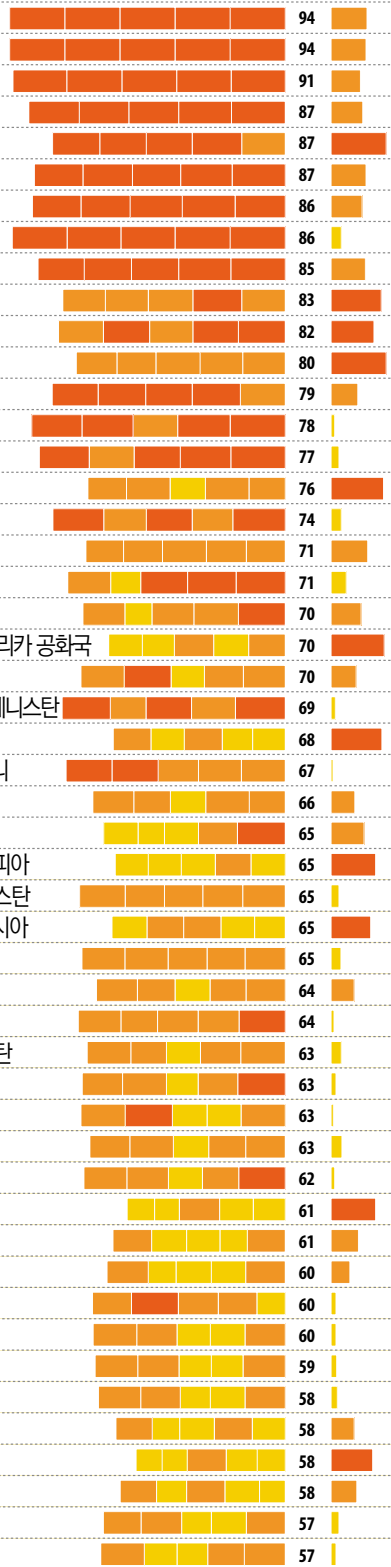
박해 최고점수 = 83.3
+
폭력 최고점수 = 16.7
=
순위 #
최고점수 = 100



박해순위

- 북한
- 아프가니스탄
- 소말리아
- 리비아
- 파키스탄
- 수단
- 에리트레아
- 예멘 아랍 공화국
- 이란
- 인도
- 시리아
- 나이지리아
- 이라크
- 몰디브
- 사우디 아라비아
- 이집트
- 우즈베키스탄
- 미얀마
- 라오스
- 베트남
-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 알제리
- 투르크 메니스탄
- 말리
- 모리타니
- 터키
- 중국
- 에티오피아
- 타지키스탄
- 인도네시아
- 요르단
- 네팔
- 부탄
- 카자흐스탄
- 모로코
- 브루나이
- 튀니지
- 카타르
- 멕시코
- 케냐
- 러시아 연방
- 말레이시아
- 쿠웨이트
- 오만
- 아랍 에미리트
- 스리랑카
- 콜롬비아
- 방글라데시
- 팔레스타인 영토
- 아제르바이잔

전체 점수



높음 매우높음 극심함 박해정도



따돌림 당하는 북아프리카의 기독교 어린이들

“너는 지옥에 갈 거야”라는 파티마의 말은 메리암의 마음에 비수를 쏘는다. 파티마는 메리암의 뒤를 돌아서 멀리 떠나버리고 메리암은 혼자 남겨지게 되고, 결국 학교 친구들은 메리암과 이야기하려 하지도, 놀려고 하지 않는다. 메리암은 교실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일한 소녀이며, 11살의 튀니지 어린이이다. 그렇지만 누구보다 북아프리카에서 이루어지는 박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무슬림이 주류를 이루는 나라에서 기독교를 믿는 어린이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독교를 믿는 어린이들은 친구로부터 그들의 민족이 믿는 신을 버렸기에 그들이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비롯해, 이들이 다른 많은 신을 섬기는 것, 이들의 부모님이 죄인이라는 등의 여러 험담을 듣는다.

알제리의 한 목사님은 이렇게 아이들이 박해 받는 것이 아이들과 부모에게 또한 매우 어려운 일임을 이야기한다. 세 명의 십대를 둔 아버지로서 북아프리카에서 기독교를 믿는 아이들의 고충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었다. 그는 매년 학교에서 돌아온 그의 자녀들로부터 학교에서 따돌림 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에 선

생님들 또한 동조하고 있음도 이야기해주었다.

때때로 아이들이 집으로 실망감을 안고 돌아오는데 이 일은 대부분의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의 모습이다. 그 목사님의 아들 중 한 명은 몇 년 전에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왔고, 이로 인해 자신의 방에서 잠을 못 이루는 상황까지 이어졌고 아들은 결국 아버지와 함께 잘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목사님은 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지금은 점차 나아져 다행히 아들도 자신의 방에서 혼자 잠을 이루게 되었다.

대부분의 기독교를 믿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기독교 신자임을 밝히지 않으려고 한다고 한 목사님은 말한다. 부모로서 아이들을 지지하고,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굳건히 서기를 원한다고도 말하였다. 물론 자녀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할 때 현 교육과정에서 간혀 있는 느낌을 받는 것을 사실이다. 학교에서는 쿠란을 배우는 것이 정규 과정이고 이것으로 인해 아이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 주에 최소 몇 구절을 배워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자신들을 따돌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무슬림인 친구들이 아이들의 신앙에 관



해 물을 때 마음을 열고 답변해주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때로 메리암은 울면서 학교에서 돌아온다. 그렇지만 메리암의 부모는 메리암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그녀를 위로해준다. 그리고 성경에서 박해를 받은 사람들을 알려주고, 아이를 위해 기도해준다. 그러면서 메리암은 교회에 갔을 때 자신만이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일게 되었다.

알제리의 어느 목사님은 이런 문제가 한 가정, 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은 비기독교인 청소년들과 기독교 청소년들이 서로 어울린다는 것이다. 그들은 십대이기에 서로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고, 아이들은 서로의 고민들을 나누기에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하여 아이들을 돕는 사역을 교회가 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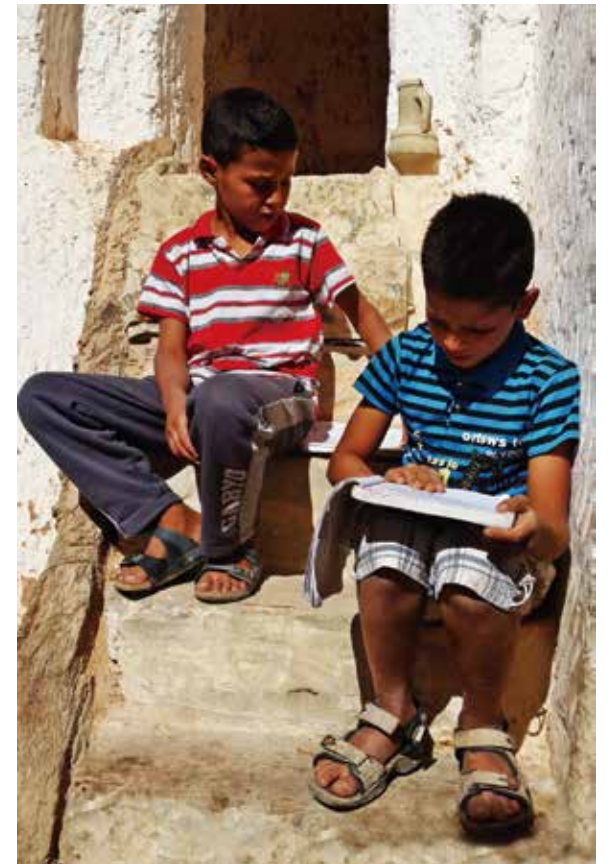
북 나이지리아 샤리아에서 학교 지원을 통해 희망적인 미래의 학교 1,000개를 세우는 사역

2005년 이후, 오픈도어는 북 나이지리아의 샤리아 자치 주 가운데 기독교 학교들을 지원하기 위해 열심히 힘써 왔다.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현지 사역자 발랐은 후원자들의 후원과 지원을 통해 만들어지는 희망과 우리 후원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펠리시아는 학교 도서관에 앉아 있다. 도서관은 넓은 공간이고 그곳의 큰 창문으로는 햇빛이 쏟아져 내린다. 도서관은 먼지 한 톨 보이지 않고 티 하나 없이 깨끗하다, 펠리시아 뒤로 흰색과 보라색으로 칠해진 책장이 하나 있다. 책장에는 교과서들이 과목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그녀는 책장처럼 보라색으로 칠해진 책상에 앉아 있다. 더 많은 학생들이 그녀의 옆과 건너편에 교과서에 집중하여 머리를 푹 숙인 채 책상을 차지하고 앉아 있다. 학교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소리가 들려온다, 아이들은 함께 놀며 공부하며 평생을 함께 할 우정을 만들어가고 영적으로 다듬어져 간다.

왜 학교를 지원하는가?

보코하람이 2014년 4월 보르노주의 치복에 위치한 여자 중학교에서 거의 300명의 학생들, 대부분 그리스도인의 학생들을 납치했을 때, 전 세계는 분노했다. 납





치된 여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과 함께 비난하는 사람들은 교육에 대한 여자아이들의 권리를 부인하는 반란군들의 뻔뻔함에 분노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은 북 나이지리아 전역의 그리스도인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그와 동일한 권리를 거부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지방 정부와 공동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자유를 거의 주지 않는 북부 지역의 샤리아 자치 정부에서의 현실이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은 정부가 기금을 무슬림 마을에 할당하여 만든 학교, 병원, 우물과 같은 기본적 사회 보장 제도에서 자주 제외된다.

주립 학교에서 그리스도인 학생들이 직면하는 차별은 또한 참기 매우 어렵다. 어떤 주에서는 기독교 종교 지식은 금지되고 있는 반면, 이슬람 종교 지식이 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된다. 어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어린 나이 때부터 쿠란의 구절을 암송하도록 강요받는다. 우리에게 말해왔다. 여학생들은 히잡을 쓰도록 자주 강요받는다. 당신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할 허가를 받기 위해 존(John 요한)과 같은 크리스천 이름에서 아미르, 무하마드 또는 유수프와 같은 무슬림 이름으로 바꿔야 한다고 상상해보라. 이제 자녀가 주립 대학에 진학하기 원한다면 무슬림이 되어야 하는 선택에 마주한다고 상상해보라. 많은 부모들에게 이런 대가는 지나친 것이고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무슬림이 되라는 계속적인 압박을 마주하는 학교에 보내기보다는 집에서 공부하게 하는 편을 택한다.

그리스도인들이 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엄청난 모험이고 도전이다. 정부의 보조금이 부족으로 인해 이런 기독교학교들은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때로 시설도 부족하고 미약하다. 우리는

시설이 매우 기본적인 것들만 있어서, 학생들이 바위를 의자 삼고, 무릎을 책상 삼아 수업을 받는 학교들을 발견했다.

또한 학교가 거의 없거나 매우 멀리 있어서 어린이들이 학교까지 수 마일을 걸어가야 해서 꼭두새벽에 일어나는 엄청난 수고를 해야만 한다. 학교 수업을 마친 후에 아이들은 거의 저녁 황혼 무렵 집에 도착하여 바로 부모님들이 땅을 경작하는 일이나 소를 돌보는 일을 도와야 한다. 그들은 지친 상태로 잠자리에 들고, 다음 날 이런 피곤한 일상을 반복한다. 이런 일상이 반복되는 동안 내내 그들의 학업은 무슬림 학생들보다 계속 더 뒤처지고 있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기독교학교를 지원하는 것을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우리의 지원은 무엇을 포함하는가?

오픈도어가 얼마 전 펠리시아의 학교를 방문했을 때, 우리는 학교 운영의 놀라운 의지를 목격했다. 정부는 몇 년 전 정부 건물을 제공했지만 학교 건물은 황폐해졌고 수리가 시급했다. 그러나 정부 관리들은 그들을 돕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비록 어떻게 학교를 수리를 마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 스스로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의 학교 방문 이후, 우리는 그들에게 새로운 교실 3개, 도서관, 여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로 제안했다. 우리는 또한 우물을 뚫았다.

오늘 이 학교는 445명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 펠리시아를 포함한 60명의 여학생들은 기숙사에 머무른다. 그녀의 학교는 오픈도어가 2005년 이후로 수리를 하거나 처음부터 새로 지은 16개 학교 중 하나이다. 카트시나 주에 5개 학교, 카노 주에 5개 학교, 바우치 주에 4개 학교 그리고 잠파라와 카두나

주에 각각 1개 학교.

각 지역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건축을 돕거나 교실, 연구실, 세면대, 사무실 기숙사, 도서관에 가구를 채우는 것을 돕는다. 추가적으로 우리는 교과서와 도서관을 채울 서적들을 제공한다. 우리는 또한 교사들을 위한 세계관 교육과 행정 직원들을 위한 운영 훈련을 제공한다.

학교들은 각 건축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하고 대지 구매와 허가증 등에 대한 지방 정부와 협상하는 것과 같은 일들에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학교들은 정상적으로 운영 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학교 비용을 청구한다. 그러나 우리의 지원은 그들이 훨씬 더 적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해준다.

펠리시아가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도서관이다. “이 도서관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를 도와줘요. 우리는 숙제를 해야 할 때면 이곳에 와서 해요. 선생님들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제에 대해서 찾을 때도 도서관은 우리에게 도움을 줘요. 우리는 여기에 와서 정보를 찾아보고 더 쉽게 그 주제에 대해 이해하게 돼요. 이 도서관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는 누가 봐도 훌륭한 장소는 아니지만 펠리시아와 친구들이 와서 접하는 학교는 굉장히 값진 곳이다. 그들의 학교에 대한 오픈도어의 지원이 없었다면, 그들은 전혀 소망을 갖지 못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성인이 되었을지 모른다.

아유바 하루나 목사님은 펠리시아의 전체 공동체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을 전하셨는데, 수혜자들이 제공

받은 것에 대해 가진 아주 깊은 감사의 마음이었다.

“우리가 주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회적 보장을 거부당하고 도움을 받을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육이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정말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느낍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오픈도어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의 기도에 응답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진 자원을 우리를 돕기 위해 제공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분들을 풍성히 축복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말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느끼는 기쁨과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후원: 우리은행 1005-901-884982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사역자 모집 (전임)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믿음 안에 굳세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사역하고 있는 한국 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헌신할 사역자를 구합니다.

1) 모집인원 : 〇명

2) 주요업무 : 일반 회계 업무 및 프로젝트 관리

3) 지원자격

- 고난 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일에 열정과 사명을 가진 분
- 영어 업무 가능자, 회계 관련 경력 또는 전공자 (해외 본부와의 업무 협업)

4) 우대사항

- 재정 및 회계 부서 유경험자
- 외국계 기업 등 영어를 사용한 업무 환경에서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5) 사역 조건 : 4대 보험 지원, 급여 개별 협의

6)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홈페이지 양식 참조)
- 추천서 2부,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 증명서 사본 (면접시 지참)

7) 제출처

이메일: info@opendoors.or.kr

우편: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9길 10 영성빌딩 4층

문의: 이제나 간사(010-4668-6356)

오픈도어 사무실을 후원해주세요



선교회는 사무실 공간을 제공해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연락처: 02-596-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선교회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 업무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금액: 700백만원

은 행: 신한은행

계 좌: 100-027-607588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



1			4				
			5	6			
2		3					
				7			
			8				9
	10						
			11				

가로열쇠

2. 앞의 일을 내다보고 예언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하는 대언자를 말한다. 모세,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등이 있다.
5. 디매오의 아들.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예수님을 통해 눈을 뜬 여리고 출신의 맹인 거지이다. (막 10:46-52)
7. 남아시아에 위치한 이 나라는 전체 인구 2천만명 중 약 9%가 기독교인이다. 불교 민족주의자들에 의한 기독교 박해가 자행되고 있으며, 올해 기독교 박해지수 46위로 작년 57위에서 11 계단 상승했다.
8. 노아 홍수가 그치고 물이 감한 뒤 방주가 머물렀던 산. (창 8:4),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 중 바벨론을 멸망시킬 도구로 사용될 열국 중 한 곳이다. (렘 51:27-28)
10. '불타는 자', '고귀한 자'란 뜻. 여호와를 곁에서 모시는 세상(여섯 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로서, 인격적이며 영적인 존재이다. (사 6:2-3)
11. 올해 10/9-11일까지 경기도 연천에서 진행되는 익스트림 스포츠 행사. 네덜란드 4M Foundation과 국제오픈도어가 제휴하여 북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국제 스포츠 행사이다.

세로열쇠

1. 한국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에서 주최하며 올해 7회째이다. 총 3학기 강의로 진행되며, 국내 통일과 북한선교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담은 다양한 강의 주제로 올해 4월 개강 예정이다.
3. 고대에 귀하게 여겨졌던 보석 중 하나. 대제사장이 착용했던 판결 흉패 셋째 줄에 장식했던 보석 중 하나이다. (출 28:19)
4. '바위'란 뜻.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지어주신 새로운 이름이다. (요 1:42)
6. '씨앗을 뿌림', '흩어짐'이란 뜻. 신앙적, 경제적, 정치적 이유 등으로 고향에서 타지로 이주한 자들을 가리킨다. 베드로는 이들을 '흩어진 나그네' (벧전 1:1)로 부르는데, 이들은 영원한 고향인 천국을 사모하며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을 상징하기도 한다.
9. '절벽'이란 뜻.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야 인근 성읍. 블레셋과의 전투에 대비해 사울과 일행이 진지를 구축했던 곳이다. (삼상 14:2)
10. 가르쳐 올바르게 이끌어 주는 사람.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가리켜 '이방인의 OO'이 되었다고 하였다. (딤후 2:7)

바	벨	답		성		
	드			예	루	살
	사		바			렘
	살	로	메		기	묘
콜			나		독	
롬				순	교	자
비	둘	기			박	
아				해	시	계

지난 달 당첨자

안*호 (7779), 홍*혜 (7766), 배*준 (9125)님 축하 드립니다.

정답과 함께 성함, 휴대폰 번호를 기입하신 후 아래 email로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E-mail : odsk@opendoors.or.kr (마감 : 2019년 4월 10일)

2019

머스카슬론(Muskathlon)

한국대회 국내 참가자 모집

취지: 북한의 박해 받는 교회를 돕기 위해 전세계 후원자들이 함께 하는 익스트림 스포츠 행사

일 시: 2019년 10월 9-10일(1박 2일)

장 소: 경기도 연천군

종 목: 산악 마라톤 10km, 21km, 42km
산악 하이킹 10km, 21km, 42km, 68km
산악 자전거 21km, 42km, 63km, 120km

참가비: +30만원(체류비용 + 선교헌금)

참가비 모금: 가족과 친구 혹은 동료 및 교회를 통해 대회 취지를 설명하고
매월 소액을 모금

참가인원: 해외 100명(확정) + 국내 50명 모집 중

자원봉사자 모집: 인원 20명(영어 가능자 우대), 행사 기간 체류 비용 지원

박해의 숨은 희생자 어린이·청소년 돕기 캠페인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어려서부터
박해에 노출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신앙과 삶을 위해 함께해주세요.

- ▶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 ▶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말씀으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 ▶ 부모로부터 희생으로 인해 남겨진 자녀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80-890028-03905

예금주: 김성태(오픈도어선교회)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9길 10, 영성빌딩 4층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오픈도어선교회의
정기후원자가 되시면,
전 세계의 박해 지역의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희망의 선물 2019 캠페인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2019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길 바라려 ...

성경 훈련	선물 1	아프리카의 박해 국가 어린이들에게 성경 전달	×	5,000원	=	원
	선물 2	시리아의 제자훈련 프로그램	×	70,000원	=	원
	선물 3	중동의 목회자 훈련 사역	×	150,000원	=	원
생존	선물 4	위험에 처한 무슬림 국가의 성도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5	탈북자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50,000원	=	원
	선물 6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상담 사역	×	80,000원	=	원
여성	선물 7	박해의 최전선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영육간의 돌봄 제공	×	30,000원	=	원
	선물 8	무슬림 국가에서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80,000원	=	원
어린이	선물 9	중앙아시아의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20,000원	=	원
	선물 10	박해 최상위 10개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서적 전달	×	10,000원	=	원
난민	선물 11	중동의 크리스천 난민들에게 대피소와 구호품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12	한 사람의 난민의 훈련과 의료적 돌봄	×	40,000원	=	원
총 계					=	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www.opendoors.or.kr

참여안내

보내주신 헌금은 후원자분들의 뜻에 따라 각 선교지에 보내어집니다.

1. 전달하려는 선물에 표시하고 총 선물 금액을 계산합니다.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캠페인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 전화 (02-596-3171) 또는 이메일 (odsk@opendoors.or.kr)로 선물 신청 내역을 알려주세요.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